

완주 고산휴양림 · 문화공원 '각광'

사계절 가족휴양지 · 신개념 레저시설로 급부상 매년 17~18만명 방문... 입장 수익금 11억 기록

완주군의 고산 자연휴양림과 인접한 고산문화공원이 대표적인 휴양레저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7일 군에 따르면 692ha 규모로 1일 최대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고산 자연휴양림은 삼림욕을 즐길 수 있는 사계절 가족휴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또한 무궁화매미박물관 및 동산, 무궁화 오토캠핑장, 밀리타리파크, 만경강과학관 등으로 들어선 고산문화공원은 신개념 레저시설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이 곳은 매년 17~18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완주군에는 11억원의 입

장수익을 통해 재정운영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 2013년의 입장객은 17만명, 입장 수익은 11억9000만원이었고, 2014년에는 18만4000명, 11억4500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메르스 여파로 약조 등에도 불구하고 고산 휴양림과 고산 문화공원의 인기는 흔들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이 집계한 지난해 이 시설의 입장객은 고산 휴양림 9만8000명을 비롯해 14만5000여명에 달했다. 입장수익 또한 8억원에 근접했다.

이처럼 사계절 휴양레저 공간으로 각종 시설이 밀집해 있는 고산 자연휴양림과 고산문화공원에는 날이 밝아 올수록 계절이 찾아올수록 더 많은 입장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군은 각종 안전장비 정비, 경관조성사업 등을 통해 전복을 넘어 전국적인 휴양레저시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우식 시설공원사무소장은 "고산 자연휴양림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자랑하는 완주군을 통째로 가져다놓은 휴양시설"이라며 "이외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이 온 만큼 고산 휴양림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많이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무주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온힘

군청서 유관기관협 개최 산불예방 상황실도 운영

무주군은 17일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2016년 산불방지 및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무주군 하성읍 부군수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과 무주경찰서, 무주 119안전센터, 무주국유림관리소,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무주군 산림조합, 한국도로공사무주지사, 한국전력공사무주지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산불방지 대책과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대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소나무류 재선충병 생태와 방제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성읍 부군수는 "무주군 산림을 위협하는 산불과 소나무재선충병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행정과 유관 기관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도경계 인접 지역에서 재선충병이 발생하는 등 긴장되는 상황이지만 각 기관의 역량을 모아 지혜롭게 넘어서 보자"고 말했다.

군은 산불예방을 위해 5월까지 상황실을 운영하며 산불감시 인력과 장비가동 공무원 1마을 1담당 출장 무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밴드를 활용한 홍보 전 직원 24시간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해 민일의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다.

또한 이달30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산인접(100m 이내)는 · 발두령, 능산

패기물 소각행위 전면 금지, 소각산불 취약계층(고령자, 정신이상자) 밀착 관리, 산림 인접 135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예방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 예방을 위해서는 산림 병해충예찰방제단을 통해 관내 소나무류 고사목을 전수 조사하는 한편, 6개 읍면 산발감시원들이 소나무류 고사목 예찰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 계획이다.

아울러 읍면 이장회의와 유관 기관과의 회의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상황과 방제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소나무 관리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구해 관리에 더욱 민전을 기할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 이서 하수관거 · 원가천마을 하수도 정비

이달 착수 내년 2월 완공계획

완주군은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새만금 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이서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과 원가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설계용역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게 될 용역은 이달 3월에 착수하여 내년 2월 말 완공계획으로 지형현황측량 · 토질조사 · 배수설비조사 등 기초조사를 통해 해당지역의 공중위생 향상 및 새만금

상류지역 수질 개선을 위한 하수처리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서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70억원(국비 49억원, 지방비 21억원)을 투자하여 이서면 이서리·상계리·금평리 일원에 하수관거 12.6km와 배수설비 279가구를 정비하고 원가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68억원(국비 44억원, 지방비 19억원)을 투자하여 경천면 용복리·가천리 일원 하수관거 7.2km와 소규모하수처리장 배수설비 218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오는 2018년 완공

을 목표로 추진하게 된다.

완주군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실시설계용역을 연내 마무리하고 동시에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내년부터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해당지역의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오수는 하수관을 통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하게 된다.

/원주=이종복 기자

전주매일 www.jjmaeil.com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주말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행사문의
진안군청 진박산업과
063-430-2951



진안군보건소는 마령 원동촌마을을 금연실천마을로 지정했다.

진안군, 금연 찾아가 돕습니다

마령 원동촌 금연실천마을 지정 · 운영

진안군보건소(소장 이승호)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금연실천마을을 지정·운영해 지역 내 금연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금연마을사업은 마을 주민 스스로 자발적인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고 흡연자에게 금연 실천을 독려하여 마을 내 흡연자가 전혀 없는 건강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처음 금연실천마을로 지정된 마령면 원동촌마을에서 사업 설명회를 가진 후 주민자를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금연 성공다짐 금연 서약식을 가졌다.

또한 흡연자 전원을 금연클리닉에 등록하고 6주 동안 주회 마을을 방문해 흡연자에게 금연상담과 교육, 니코틴 대체요법 등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마을 내 모든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한 때에는 금연마을 지정과 함께 금연마을 인증표시판을 수여하고 마을에 별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금연 성공자에게는 연말에 성공기념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원동촌마을 박준권(79) 이장은 "개인적으로 금연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는데 마을 주민 전체가 금연을 결의하고 나니 한결 의지가 높아졌다"며 "올해 안에 마을 내 흡연자 전원이 금연에 성공해 금연마을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호 소장은 "금연마을 사업이 마을 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 증진을 물론 인근 마을에 금연 분위기를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연마을을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농가 부담은 줄고 혜택은 늘고'

진안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당부

진안군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 감소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재해대책 지원은 최소한의 구호수준에 그치고 있어 미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대형 재난 대비에 필수적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조수해 등)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품목별로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보험료는 정부 50%, 지자체 20%를 지원함으로써 농가는 보험료의 21%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은 벼, 과수, 원예작물 등 32개 품목이며,

시설 하우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품목별로 가입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주 가입 대상인 벼는 4월,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은 2월에서 11월 말에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시 농지원부를 지참해야 한다.

특히 보험가입에 대한 농가 부담을 덜기위해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벼 품목에 대해 무제한 시 농가부담보험료의 70%를 환급해준다.

군 관계자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시설 피해를 대비할 좋은 기회"라며 "보다 많은 농가가 가입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로컬푸드리츠

무주군, 음식점 시설 점검 나서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무주군이 일반음식점에 대한 대대적인 시설 점검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점검은 군이 올해의 관광도시, 또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지로써 손색이 없는 음식문화를 선보이기 위해 내린 조치로, 군은 우선 태권도원 방문객들의 주요 동선인 무주읍과 실천면 적상면에 이르는 111개 업소에 대해 △냉장 · 냉동고 관리 실태와 방충 시설 설치 여부, △폐기물 용기 비치 여부, △화장실 청결상태 및 손 씻는 시설 구비 여부 △식재료 관리 및 객장과 바닥 청문, 천장의 위생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농기센터, 2015년 농촌지도사업 성과보고회

장수군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원)는 17일 대학교수, 농업유관기관 및 농업인단체장 선도농가와 농업기술센터 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2015년도 농촌지도사업 성과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농업기술센터 주요사업장 현황발표를 시작으로 2015년도 농촌지도사업 주요성과 및 2016년도 추진계획 발표, 주요 연구사업 결과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군은 지난해 지역농업특성화사업으로 표고버섯 융복합산업육성, 표고버섯 재배면적을 2011년 4호 0.1ha에서 2015년 36개소 1.61ha로 확대, 관내 생산량을 270톤까지 증대시켰으며 서울대공원 내에 장수사과고향숲을 조성해 도시민에게 장수사과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건설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관훈 기자



장수군, 민방위 재난대비훈련

장수군이 재난대비 훈련으로 주민인원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은 지난 15일 오후 2시 산서면 이릉마을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민일의 사태 발생 시 위기 대처 능력을 높이고 초동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훈련으로 이날 지역주민, 민방위대원, 의용소방대원 및 유관기관 등 1백여명이 참여 민 · 관 합동의 긴밀한 공조체제하에 실천훈련이 실시됐다.

이날 훈련은 산서면 이릉마을회관에서 화재발생에 따른 초동대응, 주민대피, 부상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화재진압 순으로 진행됐다.

진안군 수박방입재배 교육 실시

진안군은 18일 진안고원 시설하우스 수박재배단지 육성 및 고품질 수박을 생산하기 위한 수박 방입재배 교육을 관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부귀면사무소에서 실시했다.

진안군농업기술센터는 수박 방입재배는 수박의 3월기 또는 2월기 재배 시 수박을 착과하는 출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출기를 결순을 제거하지 않고 방입하는 방식으로 노동력의 60% 이상을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재배기술이다.

이번 수박방입재배 교육은 이론교육, 선진지 견학 및 현장 컨설팅 등 8월말까지 총 9회 실시할 예정이며, 수박방입 재배법 개발자인 구미시 농업기술센터 이웅학 지도사가 교육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